禪 대중화 이끌 문경 명상마을 건립 본격화

건립추진위 7월 12일 봉암사 인근서 기공식

명상 결합, 선(禪) 대중화 시작
'수행 소프트웨어' 현대화 기대
핵심인 '2단계 불사' 후원 절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얀마 마하시 위빠사나센터, 프랑스 플럼빌리지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수행 마을 건립이 본격화된다.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의정, 이하 건립추진위)는 7월 4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오전 11시 문경 봉암사 인근 건축현장에서 '문경세계명상마을'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에서는 최근 명상 열풍이 일고 있지만 명상의 원류로 꼽히는 선(禪) 수행 대중화는 요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 차원의 명상센터 및 명상마을 조성에도 현대화된 선(禪) 수행을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었다.

이번 기공식은 1단계 불사의 시작으로 대지면적 12만230㎡, 연면적 1만1천100㎡에 연말까지 교육·강의와 숙박 등 주 건물 역할을 할 웰컴센터와 주차장이 조성된다.

건립추진위 상임위원장 의정 스님은 "현재 인류는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의 부조화로 고통받고 있다. 선 수행 속에 이런 고통 해결의 답이 있다"며 "세계명상마을에서 '선 붐'을 일으켜 현대사회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은 "참선 수행을 기본으로 혜민 스님을 비롯한 국민멘토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조계종 유일의 종립선원인 봉암사 인근에 위치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근현대 한국불교 태동지로 평가받는 문경 봉암사는 아직까지도 1년 중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는 외부 개방없이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선수행 대중화의 장애로는 명상센터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수행면담 등으로 지도하는 스님들을 평소 만나기 어려운 것도 꼽혔다. 인근에 위치한 만큼 봉암사와의 활발한 연계 활동이 예상된다.

의정 스님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참선 수행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칠 중진급 수좌 스님들을 양성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키우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영어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명상마을에서 선수행을 접하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공식에 이어 건립추진위는 후원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한반도 선(禪) 전래 1200주년인 2021년까지 2단계 불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명상마을 조감도. 1차 불사로 조감도 중앙 오른편의 웰컴센터가 기공된다.

2단계 불사는 2019년부터 명상실과 숙소동, 무문관 등 본격적인 수행시설이 들어서는 사실상 세계명상마을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290억원에 달한다. 오현 스님의 보시 등 주요 불자들의 동참이 원동력이 된 1단계 불사 기공과 달리 일반대중들의 십시일반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동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불사는 정성이 핵심"이라며 "유력인사, 기업의 후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대중들이 후원회원 가입 등을 통해 전통 수행법을 널리 알리는 이 곳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은 "2021년까지 문경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불과하다. 수행문화 확산, 한국 정신문화 발전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며 "10월 말 부산에서 간화선대법회를 여는 등 선풍 진작과 기금 모연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훼불사건 근절 위한 문화재 보호제도 수립"

"각 종교계와 정부는 종교간의 화합과 평화를 깨뜨리고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이교도들이 사찰서 훼불행위를 벌여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 이하 종평위)는 6월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6월 1~2일 두 차례, 이교도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경주 골굴사에 잠입해 복전함에 십자를 그렸고, 표시석에 '죽을 사(死)' 등을 썼다. 6월 18일 합천 해인사서도 이교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난입해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등 구호를 외치며 법회 진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

종평위는 각 종교계와 정부에 △종교차별 근절 △전통 문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각 종교계는 이웃종교와 문화적 고유함을 훼손하는 언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배타적 종교관으로 인한 차별·혐오 없는 사회와 전통 문화·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전법으로 밝은 세상 만들어 가길"

조계종 교육원, 전법 승가결사체 인증서 수여

전법·사회 활동 20개 단체에
인증서 전달… 지원금 지급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에 선정된 20개 단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법·호스피스·해외구호·무료급식·환경사업 등을 진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연수인증 단체로 선정·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사를 거쳐 20개 승가결사체가 선정됐다. 영국 런던에서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로터스마인드(Lotusmind)'를 비롯해 EM을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는 'EM 지구사랑 작은실천', 소년원 청소년들을 위해 심신교화활동을 진행하는 '안양계', 국제구호활동과 노숙자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는 '다나(다함께 나누는 세상)' 등 이색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수다.


승가결사체 인증서를 받은 스님들이 각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전법교화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으며, 활동에 따른 연수 점수 50점이 부여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1천만원 지원 단체는 1곳이며, 700만원 4곳, 500만원 10곳, 300만원 5곳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과 지원 사업은 승가교육이 기존 강의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승인된 20개 단체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모범이 된다면 한국불교의 전법교화활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승가결사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EM 지구사랑 작은실천(대표 혜솔·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에서 활동하는 혜눌 스님은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쌀뜨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며 "EM을 통해 생활하수들을 정화할 수 있다. 이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효기를 개발했고, 일선 사찰과 불교 단체에 보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마인드' 대표 법전 스님은 "지난 2016년 해외 포교에 원력이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런던에 포교당 '로터스마인드'를 설립했다"며 "이곳에서 사찰음식, 다도, 참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현지인과 교포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구호·노숙인 급식 활동을 하고 있는 '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종각 등을 다니며 노숙인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으니 노숙인들에게 국밥 한 그릇을 전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밥차 운영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건축박물관 인수는 수덕사에 도움"

정묵 스님, 의혹규명 해소위원회에 인수과정 밝혀

MBC PD수첩이 지난 5월 1일 방송에서 수덕사의 한국고건축박물관 인수와 관련해 가장 큰 수혜자로 설정 스님과 속가가족을 꼽은 가운데 수덕사 측이 박물관 인수과정을 공개했다.

조계종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산하 의혹규명 해소위원회는 7월 4일 예산 수덕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고건축박물관 인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인수과정 보고는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이 직접 맡았다.

정묵 스님에 따르면 설정 스님의 속가 친형인 전흥수 대목장이 세운 고건축박물관은 2009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당시 법사감정가 92억여 원으로 평가됐다. 이후 타종교계와 학계 등에서 약 6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전 대목장은 수덕사가 인수해 온전히 보존해줄 것을 설정 스님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14년 10월 수덕사 인수를 전제로 설정 스님을 가등기권자로 설정했다.

수덕사는 2015년부터 고건축박물관 인수 논의에 착수, 매매와 증여, 투자 등 구체적 인수 방법을 검토한 뒤 최근 종단 기채승인을 받아 44억1000만원에 박물관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근저당 해지에 34억3000만원이 사용됐으며, 9억8000만원이 전 대목장에게 지급됐다. 아울러 설정 스님과 조카 전욱진 씨의 명의였던 토지 약 3만6049㎡(1만905평)는 수덕사에 증여됐다.

전 대목장 지급액과 관련해 정묵 스님은 "해당 금액은 공사대금 미지급분과 남은 토지 근저당 해지 등에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
사찰·박물관 역할 수행

정묵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박물관 인수가 의혹으로 불거졌지만 수덕사의 숙원사업으로 정해진지 오래된 일"이라며 "44억원이라는 시세 대비 낮은 금액에 매입한 것은 전 대목장이 아닌 수덕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묵 스님은 또한 박물관 토지 일부를 종교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사찰과 박물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찰명은 '진법사'로 정해졌으며, 현재의 건물을 보존하면서 전시실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다.

예산 수덕사=윤호섭 기자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스님의 시다림을 받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불교상조회사가 어디지?

BTN 불국토 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 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